

제3절 마음에서 마음으로, SBS 라디오

1. 청취자의 마음을 읽는 SBS FM 시대

1996년 11월 14일 12시, 수도권 전역을 청취권으로 하는 음악 전문 채널 107.7MHz SBS POWER FM이 문을 열었다. 음악 전문 채널 개국으로 SBS는 창사 6년 만에 TV, AM 및 FM 라디오를 갖춘 실질적 종합방송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 SBS POWER FM 개국 행사가 열렸다. 1층 로비에서 열린 개국 행사는 FM 개국 경과 보고에 이어 정치계, 관계, 방송계 초청 인사 20여 명과 본사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테이프 커팅이 실시됐다. 이어 참석 인사들은 10층 라디오 주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FM 개국 보턴 작동식을 가졌다.

음악 전문 FM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SBS는 1995년 1월, 장차 목동 신사옥으로 이설할 것을 전제로 기술 검토에 들어갔다. FM의 모든 시설은 종일

방송과 제작 능률 개선을 위해 최대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96년 4월, 준비를 마친 SBS는 정보통신부에 FM 방송 허가를 신청했고, 동년 6월, 107.7MHz 10Kw로 가허가를 취득했다. 이어 관악산송신소 증축 공사와 본사 연주소 설비 공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개국을 위한 시험방송에 들어가 최종 점검을 마무리한 뒤 이날 개국하게 되었다.

SBS POWER FM은 11월 14일 정오부터 13시간 동안 다양한 개국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했다. 첫 전파를 탄 「신음악 세상이 열린다」(박동주 연출)를 시작으로, 각국 FM 방송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와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노래를 담은 「출발! SBS FM, POWER FM」(장형순, 이재춘 연출) 등을 방송했으며,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FM 탄생 SBS 대축제」(정동천, 이진규 연출)를 TV 및 AM 라디오와 동시에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어 11월 15일에는 오전 1시 「전영혁의 FM 1077」을 시

작으로,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이영현의 가요토포아」, 「김지호의 사랑 느낌」 등 시간대별 청취자 층을 고려한 전문화된 음악 편성으로 애청자 확보에 나섰다. 이후 SBS POWER FM은 개국 4년 동안 애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SBS POWER FM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제2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음악을 시대별로 엮은 라이브 무대 「아리랑에서 서편제까지」로 라디오 쇼 부문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3월에는 그리스 신화를 음악과 효과음으로 재생시킨 「0시의 리퀘스트 신화 속으로」(박동주 연출)가 제11회 한국방송 프로듀서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 실험정신상을 수상했다.

SBS는 도심 밀집화와 대규모 산업 구조물 증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른 전자파 간섭 장애 등에 따라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기존 792Khz AM 라디오 청취 환경을 보완하여 깨끗한 음질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M방송 개국 허가를 신청했다.

1998년 10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의 가허가를 얻어 12월 15일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해오던 SBS는 1999년 1월 1일, 103.5MHz 표준FM을 개국했다. 표준FM은 AM 라디오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종일방송을 한다. 표준FM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 강원지역 일원까지 청취권을 확대했으며, 이동 중 수신 상태가 양호하여 운전자들에게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전달하고 있다.

개국을 맞이하여 표준FM은 12월 29일부터 1월 3일

까지 6일 동안 「표준FM 개국 축하 공연 SBS 103.5」를 마련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용인 에버랜드에서 펼쳐진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 최고 가수들이 출연하여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 축하 쇼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방청객과 청취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1월 3일 오후 4시에는 TV와 공동으로 축하 쇼 「사랑해요 103.5」를 방송하여 표준FM 개국을 자축했다. 이후 SBS 표준FM은 공익성과 오락성을 적절히 혼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IMF로 위축된 국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했다.

표준FM 개국과 함께 시작하여 2000년 7월 현재까지 이어오는 대표적인 S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봉두완 교수가 진행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 「봉두완의 SBS 전망대」(박건삼, 김영우 연출)가 그것이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연예인들의 신변잡거나 부질 없는 농담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봉두완의 SBS 전망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하여' 정통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아침 6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문제에 남다른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봉두완 교수 특유의 직설적인 비판과 해석으로 청취자들에게 후련한 아침을 열어준다. 봉두완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방송활동을 일체 자제하고 있다.

SBS 표준FM은 사내의 명칭 공모를 통해 2000년 7월 1일부터 '열사모 Love FM'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 AM 10년, FM 4년의 발자취

1992년 5월 10일, SBS 라디오는 제1회 SBS 라디언티어링 행사를 개최하여 애청자들의 건강 증진과 가족간,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3천여 명이 참석하여 잠실 아시안공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7km를 함께 걸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레크리에이션에 이어 공개방송을 진행하여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1993년 제2회 라디언티어링 행사는 2천여 명의 애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31일 남산 순환도로 8km 코스에서 열렸다.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한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여 늦가을 정취와 함께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다.

1994년 제3회 라디언티어링 행사는 여의도에서 펼쳐졌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베트남,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중국, 네덜란드 등 5개국 대사

관 풍물전을 관람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1994년 7월 31일, SBS 라디오는 행사 이름을 「SBS와 함께 걸읍시다」로 변경하여 또 하나의 애청자 문화를 창출했다.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일원에서 펼쳐진 이 행사는 1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노래와 춤도 배우고 라디오를 통해 제출한 문제를 풀어 상품도 받아 가는 등 유익한 하루를 보냈다.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새집 달기,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활동도 곁들였다. 가족 및 직장 동료와 함께 참석하여 건강과 화목과 우의를 다지는 「SBS와 함께 걸읍시다」 행사는 이후 3주마다 한 번씩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SBS 라디오가 개국 때부터 이웃돕기 행사로 해마다 펼치는 「사랑의 유람선」(김동운 연출)이 1994년 6월 12 일에는 연중 캠페인 '어린이를 바르게'와 어우러져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로 진행됐다.

전국 23만여 소년소녀 가장 중 아직까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13만여 세대를 돕기 위해 펼쳐진 「사랑의 유람선」에는 SBS 임직원과 보건사회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초대받은 소년소녀 가장 350여 명과 정을 나누고 결연을 맺는 등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잠실

을 출발하여 여의도선착장에 이르는 동안 유람선에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체험기 발표, 신호범을 비롯한 인기 가수들의 공연, 전국 청취



소년소녀가장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랑의 유람선」.